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출가-재가 법륜 두바퀴

종교적 신앙과 제례의식을 같이 하는 동질적인 사회집단을 의미하는 교단(敎團)을 불교에서는 승가(僧伽, sangha)라고 부른다. 현재 출가 수행자의 단체인 승가는 출가수행자인 비구(比丘)·비구니(比丘尼)만이 아니라, 재가신자인 우바새(優婆塞: 재가 남승신도)·우바이(優婆夷: 재가 여성신도)를 포함한 4중(四衆) 즉 사부대중으로 구성되었다.

교의 외호세력으로서 불교 중흥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늦은감이 있지만 불교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도박사건에 연루되었던 기획실장 성해스님의 사임은, 종단에서 처음으로 재가자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인 것으로 재가운동사의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종단 운영에 재가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부대중론을 펼쳐 재가 불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정대스님은 7일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 대표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종회에서 재가자의 종단 운영 참여에 대한 논의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또 기획실장 성해스님의 사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종단에서 재가자들의 건의를 사시없이 받아들여야겠다'고 덧붙였다.

정대스님은 재가자의 역할을 충분히 인정한다. 매달 만나 종단 현안을 논의하고 제언하고, 종단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대화적인 사안에 대해 재가자들이 적극 나서줄 것도 간접적으로 주문했다.

조계종을 대표하는 어른의 이 같은 시각은 출가대중의 파르너로서 재가대중이 법륜(法輪)의 한쪽 수레바퀴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 의미가 깊다. 대외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재가자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불

교의 외호세력으로서 불교 중흥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늦은감이 있지만 불교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간 재가자들은 '사부대중의 참여에 의한 종단 및 사찰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94년 개역종단이 들어서면서 재가자들의 종회 참여 등의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 때 제정된 '사찰운영위원회법' 신도회 회장 부회장의 의무적인 사찰운영 참여 역시 일부 사찰에서만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총무원장 스님의 발언을 계기로 재가자를 교단의 일부로 인정하는 스님들의 인식 전환과 재가자들의 신명혁신 및 참여의식 제고가 이루어질 기대해 본다. 김재경 <해재1부 기자>

장군죽비

◇조계종·정화회의 법률공방 계속, 언제까지 중생판사를 상대로 김법(金法)을 물어야 할까. (2면)

◇참선 수행하는 데 선어록 읽기는 어떤 소용이 있을까? 달을 가리키는 데 왜 손가락을 보나? 햇선술 하나. (2면)

◇종교계 자정·개혁운동 거세게 일고 있다. 종교는 제4차 산업? 더 이상 이런 비아냥은 없기를. (2면)

◇경주 남산 불상 88기 디지털 영상으로 다시 태어난다. 부처님, 갈수록 홍보화되는 사이버 세계에서도 대자비를 베푸소서. (10면)

불교복지 '희망 보인다'

조계종 '자원봉사 새물결 운동' 천태종 '1사찰 1그룹홈' 전개 진각종 대규모 복지타운 계획

불교자원봉사 붐 조성을 위한 전국 규모의 운동이 펼쳐진다. 또 대규모 불교종합복지타운이 건립되고, 노인복지 완성을 위한 사찰 직영의 '노인 그룹홈'이 첫선을 보이는 등 불교복지의 새 이정표를 세울 움직임이 속출하고 있다.

조계종 복지재단(대표이사 정대스)은 올해 유엔이 정한 국제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오는 3월부터 제주시를 출발해 전국 주요도시를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릴레이 방식의 (가칭) '불교자원봉사 새물결 운동'을 전개한다. 이 행사는 제주에서 시작돼 부산-대구를 잇는 영남지역과 광주-전주를 잇는 호남지역을 거쳐 대전-수원-서울로 이어지며, 강원지역은 강릉-춘천을 경유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과 행사내용은 수립 단계지만 복지재단은 이들 대도시와 인근지역의 복지시설, 사찰, 단체들이 연합해 캠페인이나 자원봉사연합체 발대식, 전시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행사를 개최해 불교자원봉사

'붐'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5월 불교주간 바로 이전 일주일간을 '불교자원봉사 주간'으로 선포하고 봉행할 때 '자원봉사 부스'를 마련, 지방을 거쳐 올라온 열기를 모으고 명실상부한 '불교자원봉사 기쁨'을 승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이번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각 지역 사찰, 단체, 시설들 간의 정보공유 및 연계 등을 통한 불교자원봉사 활성화는 물론 불교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천태종 복지재단(대표이사 윤득은)은 올해를 노인복지의 완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 '1사찰 1그룹홈'의 첫발을 내딛는다. 빠르게 다음달 중으로 부산 심광사를 비롯한 몇몇 사찰이 사찰 인근에 지역의 불우노인 4-5명이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시범운영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10년 내에 불교계는 노인복지에 관한 한 최고의 복지단체로 떠오를 전망이다.

진각종 복지재단(대표이사 성최)

경주 경마장 백지화

예정부지 사적지정

은 2002년에 '불교종합복지타운'을 완공하겠다는 계획 아래 올해 부지 선정 등 사업실행에 들어간다. 경기도 일대에 50만평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종합복지타운 (가칭) '농림촌'은 노인 장애인 여성 어린이 청 소년 실직자 등 모든 분야의 시설을 갖춘 대규모 복지시설로 불교사회복지의 전철로 발전시켜 가겠다는 복안이다.

한영우 기자 (mwhan@buddhapa.com)

5년 넘게 문화재 보존과 개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경주 경마장 건설이 백지화되고 예정 부지는 사적으로 지정돼 보존된다. 문화재위원회는 8월 13·6분과 합동회의를 열고 '경주시 손곡동 및 물천리 일대 경마장 예정부지가 문헌·화산간 지방도로 구간을 제외한 26만 5천여 평을 사적으로 지정한다'고 결정했다.

문화재위원회는 '발굴 결과 신라시대 산업생산활동과 생활사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 및 유물들이 확인

돼 역사적·학술적 면에서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문화유산 보존이 개발보다 우선함을 확인한 것이다. 최영희 3분과(사적) 위원장은 "문화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복구할 수 없는 것이기에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내 재건축 예정지도 사적으로 보존된다.

그러나 경마장 건설을 추진했던 경주시와 일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풍납토성내 재건축 지역 주민들의 보상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권형진 기자



◇인거를 마친 스님들은 산사를 내려와 또다른 수행길에 오른다. 지난 7일 동안거를 끝내고 만행에 나서는 스님들. 수행수익사=고영배 기자

80여 선원 동안거 해제

경진년 동안거 해제 법요식이 7일 해인총림선원을 비롯한 전국 선원에서 일제히 거행됐다. 해제법요식에서 해인총림 방장 법전스님과 조계총림 방장 보성스님, 덕

승총림 방장 원담스님, 태고총림 선원장 지허스님 등은 법어를 통해 '의식이 살아 있으면 해제를 해도 해제가 아닌 것'이라며 엄중한 정진을 당부했다. (해제법어 3면) 이번 동안거에는 국내 비구·비구니 선원과 해외이 무량사 태평선원 등 80여 선원에서 1700여명의 스님들이 방부를 들고 수행정진했다. 정성은 기자

신계사 복원 기원법회

조계종·현대아산 협의... 내달 4일 신계사터서

금강산 신계사 복원 기원법회와 산신제가 다음 달 4일 신계사터에서 봉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신계사 복원불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양산스님과 현대아산 김교중 부사장은 7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만나 신계사터 현지에서 복원을 기원하는 법회를 함께 봉행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대아산의 한 관계자는 "복원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반회 봉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말했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법회를 봉행할 경우 '신계사와 인연이 있는 송광사와 월정사의 스님들과 신도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며 '규모는 100~200명 인원이 될 것으로 보

다'고 말했다. 신계사는 한암스님이 주석하며 수행했으며, 현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의 은사인 효봉스님이 출가한 사찰이다.

이날 만남에서 조계종과 현대아산은 신계사 복원 비용 마련 방법과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고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계종 총무원과 현대아산은 복원 비용을 양측이 부담하며, 올해 안에 착공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한 상태이다. 정성은 기자

一心佛院
각종 불사/불교 용품 일체
大佛, 小佛, 불단, 탕학, 단장, 달집
02-725-2030/725-2040

법률 화상상담 무료서비스

알고 보면 지극히 상식에 불과한 법률에 대한 무지로 겪게 되는 불자들의 고통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현대불교신문은 오는 17일부터 고령 최초로 무료화상법률상담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불자들은 누구나 민·형사 등 여러 법률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인터넷 화상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담은 다년간의 법률상담 경험을 불자들을 위해 회화하겠다는 이종우 변호사의 헌화와 원단시장이 합쳐져 클리닉 형태로 법률적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 수 있습니다.

- △상담 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 △상담 변호사 - 이종우(국인고용차리위원회, 은평 중앙구청 등 무료상담)
- △상담 분야 - 민·형사 등 모든 법률분야



◇무료화상법률상담 실시를 앞두고 이종우 변호사가 시험상담을 하고 있다.

- △운영 체계 - 예약접수제로 운영.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접수 마감.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개별통화 무료화상법률상담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서도 공시
- △접수 방법 - 무료화상법률상담 사이트: www.buddhapa.com, 현대불교신문: www.buddhapa.com, 일간 인터넷 불교뉴스: buddhanews.com, 도서출판 예시안: www.yosian.com 등을 통해서도 가능. 문의 전화: 02-722-4162 김준근 기자

현대불교신문사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으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6년만에 320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지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하면 누구나 환하게 열린 깨달음의 길 그 길에 우뚝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 (주문 제작 보급)

사찰에 봉안하면 석보 가정에 봉안하면 가보 읽고 마음 밝히면 법보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탕화가 화려한 담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7개의 사람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 보배속의 보배: 롬비니 동산에 있는 마야템플의 살트리나무로 만든 염주(佛眼珠)를 내장했다. 살트리나무는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출산할때 잡았다는 나무다.
-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37-8881, 02-722-4162 팩스 : 02-737-0697

캠페인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 한국불교종단협의회